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5 No. 4, 249-258, November 2016
pISSN 2287-2531
eISSN 2466-1856
http://dx.doi.org/10.5807/kjohn.2016.25.4.249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김형선[1] · 권 민[2] · 이진화[3]

부천대학교 간호학과[1], 수원대학교 간호학과[2], 울산대학교 간호학과[3]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Kim, Hyung Seon[1] · Kwon, Min[2] · Lee, Jinhwa[3]

[1]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Bucheon
[2]Division of Nursing, The University of Suwon, Hwaseong
[3]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and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ethods:** This study was cross-sectionally designed. We analysed the secondary data extracted from the 2nd and 3rd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4,807 female employe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x^2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using IBM SPSS 23.0 were performed. **Results:** 46.7%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were in poor psychological health. In the area of job stress-related characteristics affecting the level of psychological health, it was found that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had a higher likelihood of becoming psychologically unhealthy due to 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nd inadequate compensation factors. **Conclus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number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is gradually expanding as a breadwinner,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of paying attention to their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health in order to support them.

Key Words: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Job stress, Mental health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큰 추세 중 하나는 민간부문 제조업의 남성 생산직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고용구조가 갈수록 공공부문, 서비스업, 비정규직, 여성 등을 포괄하는 고용구조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Kim과 Cho (2014)가 노동력 구조에 있어서 고령자, 여성, 그리고 자영업자의 증가를 보고한 바처럼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가구주 비율은 1975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21.9%였던 비율이 2010년 25.9%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현재 전체 가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30.8%, 2030년 34.0%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여성가구주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로 배우자가 부재한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미혼여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을 가리킨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출산이나 육아 등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크며 채용, 승진, 보수, 업무 등에서 남성근로자에 비해

주요어: 여성가구주, 직무 스트레스, 정신건강

Corresponding author: Lee, Jinhwa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Ulsan, 93 Daehak-ro, Nam-gu, Ulsan 44610, Korea.
Tel: +82-52-259-1266, Fax: +82-52-259-1236, E-mail: lljinhwa@ulsan.ac.kr

Received: Jul 22, 2016 | **Revised:** Jul 22, 2016 | **Accepted:** Nov 18, 2016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여성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는 남성보다 큰 편이다(Cho et al., 2013). 그 중에서도 여성 가구주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은데다 취업구조의 불합리성, 높은 실직율, 불안정한 직업 등의 문제로 구조적, 기능적 결손의 야기와 경제적 빈곤 뿐 아니라 정서적 소외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며 우울, 불안 등에서 다른 일반 여성들보다 취약하다(Ok, Sung, & Huh, 2001).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생산성의 하락, 의료이용 및 산업재해의 증가 등 치명적인 사회적 부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ang et al., 2005). 높은 직무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 및 심리적 안녕감과도 연결되어, 취업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양육 스트레스와 직무 스트레스로 보고(Lee, Choi, & Kim., 2013)되기도 하였다. 여성 근로자들이 직무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정도의 정서적 우울이나 심리적 불안, 자아정체감 위기에 빠져들거나 신체적 건강을 상실하게 될 위험에 노출될 수 되므로(Kim, 2010),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직무 스트레스의 성별 차이 비교연구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책임감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업무자율성의 저조, 역할 모호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냄을 보고(Lee, 2009)하고 있다. 대인서비스 종사자의 심리적 건강수준에 관한 성별비교 연구(Lee, 2015)에서도 남성근로자의 경우 여성근로자와는 차별되게 직무불안정성이 심리적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는데, 대부분의 남성이 가정경제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실직이나 해고와 같은 직무불안정에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근로자들이 가지는 가정경제 책임에 대한 부담감과 여성근로자라는 성적 특성, 그리고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남성근로자나 일반 여성근로자에 비해 직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직무 스트레스가 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의료비용, 산업재해 보상, 결근, 이직 및 생산성 저하 등에 영향을 주어 해당 조직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특성 면에서도 사회경제적 상태에서도 모두 취약한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건강을 다룬 연구는 없다. 그동안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시행된 국내 연구는 주로 이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빈곤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것(Bae, 2010; Kim, 2012; Shin, 2010)이 대부분이었으며, 국외 또한 주로 해당 국가의 빈곤을 주제로 시행한 연구들(Akinsola & Popovich, 2002; Rajaram, 2009; Rimaz et al., 2015)이었다. 경제적 빈곤, 불안정한 고용 등으로 대변되는 여성가구주가 생계부양자로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여성가구주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건강, 직무 스트레스, 정신건강을 파악한다.
-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건강,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를 비교한다.
-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단면적 조사연구로 제2차, 제3차 근로환경조사(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원시자료를 이차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사용승인(2015. 1. 2.)이 된 제2차, 제3차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를 받아 병합하여 이용하였다.

근로환경조사는 전국의 만 15세 이상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형태, 고용형태, 직종, 업종, 위험요인노출, 고용안정 등 업무환경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실시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8002호)이다. 근로환경조사 모집단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5세 이상 취업자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표본추출

틀로 사용하여, 16개 시도를 1차로 층화하고, 시 지역, 군 지역 등 거주 지역을 2차층으로,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의 주택유형을 3차층으로 층화하여 조사구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자는 제2차 근로환경조사 대상자 10,019명 원시자료와 제3차 대상자 50,032명 원시자료를 병합한 60,051명 중에서 가구주 성별이 여성이면서 임금근로자인 4,807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추출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근로환경조사 문항은 1991년부터 유럽연합(Europe Union, UN)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유럽 취업자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 Survey, EWCS)의 문항을 근간으로 하였다. 선행연구를(Lee, 2015, Jeon et al., 2014) 바탕으로 크게 일반적 특성, 신체건강, 직무 스트레스, 정신건강으로 구분하여 문항을 추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직업유형, 고용형태, 교대근무 여부, 야간근무 여부를 질문하는 7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신체건강은 피로, 고혈압, 비만 여부를 질문하는 3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직무 스트레스에는 총 8개 요인에 53개 문항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무환경요인에는 물리적 위험요인, 생물화학적 위험요인, 근골격계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정도를 질문하는 14개 문항을 포함시키고, 직무요구 7개 문항, 직무자율 7개 문항, 직무불안정 2개 문항, 사회적 지지 8개 문항, 조직체계 2개 문항, 보상 1개 문항, 직장문화 12개 문항을 각 요인에 포함시켰다. 직무 스트레스 특성에 관한 설문문항들은 각 문항별로 응답 가능한 항목의 수가 서로 다르다. 다른 항목의 수를 가진 문항들이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chütte 등(2014)과 Lee (2015) 의 연구를 참고하여 모든 응답이 1점에서 2점 사이의 값을 갖도록 환산하였다. 환산점수가 중위수보다 낮은 경우 'low', 높은 경우 'high'로 구분하였다.

정신건강은 WHO-5 well-being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즐거움, 차분함, 활기, 상쾌, 일상생활의 흥미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항상 그렇다)이며 점수의 총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불건강으로 분류하게 된다(WHO Collaborating Center for Mental Health, 1998). 본 연구에서는 총합 점수가 13점 이하인 경우 '나쁨', 14점 이상인 경우 '좋음'으로 구분하였다.

4. 자료수집

근로환경조사는 조사구를 선정한 후에 조사구 내의 가구를 조사원이 방문하여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설명하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가구 내 만 15세 이상 근로자 1명을 면접조사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는 안전보건공단에 사용목적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에 대한 사용승인(2015. 1. 2.)을 받은 후, Microsoft Office Excel 파일 형태로 수집하였다.

5. 자료분석

통계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건강, 직무 스트레스, 정신건강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정신건강에 따른 일반적 특성, 신체건강, 직무 스트레스는 x^2 test로 비교하였다.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전체 대상자 중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 대상자가 53.3%, 나쁜 대상자가 46.7%였다(Table 1). 평균 연령은 40.04±14.92세이었고,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38.5%로 가장 많았다. 교육 수준은 전문대학 이상으로 졸업한 사람이 40.2%로 가장 많았고, 월수입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64.7%로 가장 많았다. 판매 및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36.4%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의 형태로 고용된 대상자가 67.2%로 가장 많았다. 전체 대상자 중 7.5%가 교대근무를, 10.6%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다. 신체건강은 전체 대상자의 24.4%가 피로하였고, 7.3%가 고혈압, 2.1%가 비만을 진단받았다.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직무환경요인에서 47.6%가 중앙값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직무요구요인은 50.5%가 중앙값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직무자율요인은 50.0%, 직무불안정요인은 5.5%가 중앙값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관계갈등요인은 49.6%, 조직체계요인은 25.5%가 중앙값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보상부적절요인은 41.7%, 직장문화요인에서는 11.7%가 중앙값 이상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N*=4,807)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Mental health		Good	2,564 (53.3)
		Poor	2,243 (46.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		40.04±14.92
		15~29	1,626 (33.8)
		30~49	1,852 (38.5)
		≥50	1,328 (27.7)
	Educational status	Middle school or less	1,009 (21.0)
		High school	1,867 (38.9)
		≥College	1,930 (40.2)
	Income* (10,000 won)	<100	1,402 (29.2)
		100~299	3,107 (64.7)
		≥300	297 (6.1)
	Job type*	Clerks	1,389 (29.2)
		Sales & Service workers	1,730 (36.4)
		Blue collar job	1,632 (34.3)
	Employment type	Permanent	3,231 (67.2)
		Temporary	1,575 (32.8)
	Shift work	No	4,445 (92.5)
		Yes	361 (7.5)
	Night shift	No	4,295 (89.4)
		Yes	511 (10.6)
Physical health	Fatigue	Not have	3,633 (75.6)
		Have	1,173 (24.4)
	Hypertension	Not have	4,456 (92.7)
		Have	350 (7.3)
	Obesity	Not have	4,706 (97.9)
		Have	101 (2.1)
Occupational stress	Workplace environmental risk exposure	Low	2,519 (52.4)
		High	2,288 (47.6)
	High job demands	Low	2,382 (49.5)
		High	2,425 (50.5)
	Insufficient job control	Low	2,403 (50.0)
		High	2,404 (50.0)
	Job insecurity*	Low	4,537 (94.5)
		High	263 (5.5)
	Inadequate social support*	Low	2,177 (50.4)
		High	2,139 (49.6)
	Organizational injustice*	Low	3,579 (74.5)
		High	1,222 (25.5)
	Lack of reward*	Low	2,798 (58.3)
		High	2,004 (41.7)
	Discomfort in occupational climate	Low	4,245 (88.3)
		High	562 (11.7)

*Including missing data.

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일반적 특성의 경우 연령, 교육수준, 수입, 직업 형태, 고용 형태, 야간근무 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50세 이상(x^2=62.32, p<.001), 중학교 이하 졸업(x^2=93.82, p<.001), 100만원 미만인 수입(x^2=39.98, p<.001), 블루칼라직종(x^2=88.02, p<.001), 야간 근무(x^2=14.48, p<.001)일 경우 정신건강이 나빴다. 신체건강의 경우, 피로감(x^2=118.42, p<.001), 고혈압(x^2=6.37, p=.012), 비만(x^2=4.81, p=.028)이 있는 경우 정신건강이 나빴다.

직무 스트레스의 경우 직무환경, 직무요구, 직무자율,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환경요인에서 중앙값 이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x^2=11.04, p=.001), 직무요구요인에서 중앙값 이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x^2=5.16, p=.023) 정신건강이 나빴다. 이 밖에 직무자율요인(x^2=9.49, p=.002), 직무불안정요인(x^2=12.07, p=.001), 관계갈등요인(x^2=95.43, p<.001), 조직체계요인(x^2=234.74, p<.001), 보상부적절요인(x^2=274.53, p<.001), 직장문화요인(x^2=26.09, p<.001)에서 중앙값 이상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정신건강이 나빴다.

3.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 중 조직관계요인의 직무 스트레스가 중앙값 이상으로 높은 경우 중앙값 미만으로 낮은 경우 보다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1.79배(p<.001) 높았고, 보상부적절요인에서는 2.09배(p<.001) 높았다(Table 3).

일반적 특성의 경우 연령이 15~29세에 비해 30~49세가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1.31배(p=.001), 50세 이상이 1.29배(p=.027) 높았고, 직업형태가 사무직에 비해 블루칼라직종이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1.48배(p<.001) 높았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0.73배(p=.023) 낮았고,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1.52배(p<.001) 높았다.

신체건강의 경우 피로감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있는 대상자가 1.79배(p<.001), 비만을 진단받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진단받은 대상자가 2.05배(p=.002)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높았다.

논 의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관련한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국내 기존의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에 따르면, 주로 이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빈곤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질 및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Bae, 2010; Kim, 2012; Shin, 2010). 또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빈곤여성가구주는 정서적 문제를 갖게 될 확률이 높으며, 이는 여성가구주의 낮은 자존감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이나, 분노감, 자녀의 방임 및 학대 양상으로 표현되고, 타인을 불신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의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초래하여 사회부적응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Kim, 2013). 국외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또한 주로 해당 국가의 빈곤을 주제로 시행한 연구들이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건강 및 일상생활 영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적 중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Akinsola & Popovich, 2002; Rajaram, 2009; Rimaz, et al., 2015).

그리고 한국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직업 관련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Hong & Kim, 2012)에서는 근로환경조사를 바탕으로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가정 내 주 수입원 종류 영역에서 여성 근로자 본인이 가정 내 주 수입원인 경우 신체적 건강상태 및 심리적 건강상태 모두 가장 나쁜 것으로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의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건강관리 영역에서의 취약성에 대한 연구결과의 방향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외에서 시행된 여성 가구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단면 연구(Veisani & Delpisheh, 2015)에 따르면, 45세 이상의 연령(34%), 경제적 수준(22%)가 그들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보고하고 있고, 여성 가구주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 보고한 연구(Hamidi, 2010)에서도 주요한 상관관계가 있어 가족 및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우울 및 불안 영역에서의 건강 문제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여성 가구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각도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 및 대안 마련이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의미 있는 결과는 다

Table 2. Bivariate Analysis of Mental Health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Good	Poor	x^2 (p)
			n (%)	n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	15~29	982 (60.4)	644 (39.6)	62.32
		30~49	972 (52.5)	880 (47.5)	(< .001)
		≥ 50	610 (45.9)	718 (54.1)	
	Educational status	≤ Middle school	432 (42.8)	577 (57.2)	93.82
		High school	955 (51.2)	912 (48.8)	(< .001)
		≥ College	1,177 (61.0)	753 (39.0)	
	Income* (10,000 won)	< 100	678 (48.4)	724 (51.6)	27.28
		100~199	1,699 (54.7)	1,408 (45.3)	(< .001)
		≥ 300	187 (63.0)	110 (37.0)	
	Job type*	Clerks	868 (62.5)	521 (37.5)	88.02
		Sales & service workers	924 (53.4)	807 (46.6)	(< .001)
		Blue collar job	741 (45.4)	891 (54.6)	
	Employment type	Permanent	1,836 (56.8)	1,395 (43.2)	47.82
		Temporary	728 (46.2)	847 (53.8)	(< .001)
	Shift work	No	2,362 (53.1)	2,084 (46.9)	1.07
		Yes	202 (56.0)	159 (44.0)	(.300)
	Night shift	No	2,332 (54.3)	1,964 (45.7)	14.48
		Yes	232 (45.4)	279 (54.6)	(< .001)
Physical health	Fatigue	Not have	2,100 (57.8)	1,534 (42.2)	118.42
		Have	464 (39.6)	709 (60.4)	(< .001)
	Hypertension	Not have	2,400 (53.8)	2,057 (46.2)	6.37
		Have	164 (46.9)	186 (53.1)	(.012)
	Obesity	Not have	2,521 (53.6)	2,184 (46.4)	4.81
		Have	43 (42.6)	58 (57.4)	(.028)
Occupational stress	Workplace environmental risk exposure	Low	1,401 (55.6)	1,118 (44.4)	11.04
		High	1,163 (50.8)	1,125 (49.2)	(.001)
	High job demands	Low	1,231 (51.7)	1,150 (48.3)	5.16
		High	1,333 (55.0)	1,093 (45.0)	(.023)
	Insufficient job control	Low	1,335 (55.6)	1,068 (44.4)	9.49
		High	1,229 (51.1)	1,175 (48.9)	(.002)
	Job insecurity*	Low	2,448 (54.0)	2,089 (46.0)	12.07
		High	113 (43.0)	150 (57.0)	(.001)
	Inadequate social support*	Low	1,317 (60.5)	861 (39.5)	95.43
		High	976 (45.6)	1,163 (54.4)	(< .001)
	Organizational injustice*	Low	2,141 (59.8)	1,438 (40.2)	234.74
		High	422 (34.5)	801 (65.5)	(< .001)
	Lack of reward*	Low	1,775 (63.4)	1,023 (36.6)	274.53
		High	787 (39.3)	1,218 (60.7)	(< .001)
	Discomfort in occupational climate	Low	2,321 (54.7)	1,924 (45.3)	26.09
		High	243 (43.2)	319 (56.8)	(< .001)

*Including missing data.

Table 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Mental Health

Variables	Characteristics	Categories	OR (95% CI)	*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year)	15~29	1	.001
		30~49	1.307 (1.121~1.524)	.027
		≥50	1.293 (1.030~1.623)	
	Educational status	≤Middle school	1	.993
		High school	1.001 (0.786~1.276)	.190
		≥College	0.827 (0.623~1.098)	
	Income (10,000 won)	<100	1	.467
		100~299	1.072 (0.889~1.293)	.926
		≥300	0.984 (0.706~1.373)	
	Job type	Clerks	1	.375
		Sales & Service workers	1.086 (0.905~1.303)	<.001
		Blue collar job	1.476 (1.187~1.836)	
	Employment type	Permanent	1	.062
		Temporary	1.169 (0.992~1.378)	
	Shift work	No	1	.023
		Yes	0.733 (0.561~0.958)	
	Night shift	No	1	<.001
		Yes	1.515 (1.207~1.902)	
Physical health	Fatigue	Not have	1	<.001
		Have	1.794 (1.534~2.098)	
	Hypertension	Not have	1	.145
		Have	0.812 (0.613~1.074)	
	Obesity	Not have	1	.002
		Have	2.046 (1.293~3.239)	
Occupational stress	Workplace environmental risk exposure	Low	1	.063
		High	0.873 (0.757~1.007)	
	High job demands	Low	1	.090
		High	0.888 (0.774~1.019)	
	Insufficient job control	Low	1	.988
		High	1.001 (0.875~1.145)	
	Job insecurity	Low	1	.746
		High	1.050 (0.782~1.410)	
	Inadequate social support	Low	1	.084
		High	1.134 (0.983~1.307)	
	Organizational injustice	Low	1	<.001
		High	1.787 (1.510~2.114)	
	Lack of reward	Low	1	<.001
		High	2.085 (1.814~2.396)	
	Discomfort in occupational climate	Low	1	.355
		High	1.102 (0.897~1.354)	

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직무 스트레스 관련 특성에서는 조직관계 및 보상부적절 요인에서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건강 이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Kim & Chang, 2012)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경우 정신적 건강의 위험 정도가 직무요구요인에서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2.79배, 보상부적절요인에서 2.03배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신체적 부담 요인에 의해 2.65배, 감정노동의 요인에 의해 2.45배 더 정신건강 이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상부적절 요인이 심리적 건강수준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국내 여성근로자의 직업 관련 건강상태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Hong & Kim, 2012)에서는 심리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 요인 중 조직관계 및 보상부적절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욱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중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블루칼라직종인 경우 사무직보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체건강의 경우 피로, 비만을 진단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교대근무 관련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Kim et al., 2002)에 따르면, 교대근무는 일반건강, 수면, 스트레스, 삶의 질과 정신건강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확인되었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정신건강에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은 여성가구주 근로자라는 업무의 특성 상 육아와 가사를 함께 해야 하는 가정 내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직무 스트레스 특성, 신체건강, 정신건강을 파악한 결과 조사 대상자인 여성가구주의 46.7%에서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중 신체건강에서 24.4%가 피로감, 7.3%가 고혈압, 그리고 2.1%가 비만을 진단받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직무 스트레스 관련하여 직무요구요인은 50.5%가, 직무자율요인은 50.0%가 중앙값 이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 중 대인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건강수준을 비교한 선행연구(Lee, 2015)에 따르면, 여성근로자의 불건강 비율은 39.6%로 남성 근로자 43.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수준을 자가 평가한 기존의 연구(Kim et al., 2011)에서는 기혼여성 및 남성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 여성의 불건강 비율은 40.3%로 남성 28.6%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건강상태를 보고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 측면에서는 기존 연구에 따르면 콜센터 여성 근로자의 경우 직무자율요인이 가장 높은것으로(Yoon, Yi, Kim, Oh, & Lee, 2007), 여성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직무요구요인이 가장 높으며(Kim, Cho, Han, & Kim, 2014), 서비스업 여성 근로자의 경우 직무요구 및 관계갈등의 요인이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것(Kwak & Jung, 2014)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직무요구 및 직무자율 영역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 전반으로 관찰되고 있는 인구구조 및 가족체계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한국 여성의 위치는 국가 전반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근로자 그리고 여성가구주 근로자가 있다. 그러나 2010년을 기준으로 살펴본 여성가구주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이 55.5%로 남성에 비해 25.4% 낮으며,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3.5% 수준이며, 기혼여성의 가사시간은 4시간 7분으로 남성 46분과 비교하여 매우 높다(Joo, 2011). 성별에 따른 기존 근로자의 남녀 가구주를 중심으로 비교를 진행한 과거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경우 서비스 중심의 업무, 비정규직화, 비숙련노무직화, 관리행정전문직의 비정규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도 가구주를 제외한 취업원의 수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Yi & Lee, 2009). 또한 이러한 현상은 여성 가구주의 가사 및 양육에 대한 부담과 함께 건강상의 악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역할 구조상에 있어서의 빈곤 이상의 사회적 배제라는 파장을 야기함으로써 시대적으로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Shin, 2010). 이에 다차원적 측면에서 직장 내 취약계층으로 보고되고 있는 여성가구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가 및 기업체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관리와 중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단면조사 설계를 기반으로, 이차자료분석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확인한 연구로서 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확언할 수 없으며, 기존 문헌 및 통계적 기법을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나 조사를 통해 확인한 문항 이외의 추가적 통제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여성가구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직무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을 고찰한 최초의 연구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조직화된 중재전략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 여부 및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46.7%에서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중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이 많을수록, 블루칼라직종인 경우 사무직보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체건강의 경우 피로감, 비만을 진단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정신건강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가구주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직무 스트레스 관련 특성에서는 조직관계 및 보상부적절 요인에서 정신건강이 나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차원적으로 직장 내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와 기업체가 정책적으로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심리적 건강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관리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상 취약계층인 여성가구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적은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축적해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Akinsola, H. A., & Popovich, J. M. (2002). The quality of life of families of female-headed households in Botswana: A secondary analysis of case studie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3*(6-7), 761-772.

Bae, J. H. (2010). A study on the factors relating to the poverty status of female household head worke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4*, 131-151.

Chang, S. J., Koh, S. B., Kang, D. B., Kim, S. A., Kang, M. G., Lee, C. G., et al. (2005).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The Korea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4), 297-317.

Cho, H. S., Kim, Y. W., Park, H. W., Lee, K. H., Jeong, B. G., Kang, Y. S., et al.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mong female workers and job stress and sleep quality.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5*(12), 36-44.

Hamidi, F. (2010).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among Female-headed households employed a military university.

Hong, E. Y., & Kim, S. D. (2012). Health Status and Affecting Factors related to Job among Korean Women Employe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9), 4107-4118.

Jeon, S. H., Leem, J. H., Park, S. G., Heo, Y. S., Lee, B. J., Moon, S. H., et al. (2014). Association among working hours, occupational stress, and presenteeism among wage workers: Results from the Second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6*(6), 1-8. http://dx.doi.org/10.1186/2052-4374-26-6.

Joo, J. S. (2011). *2010 Status of South Korean Women in the statistics*. Gender Review, 20, 62-70.

Kim, D. H., Kang, D. M., Kim, J. E., Kim, Y. K., Sul, J. K., & Choy, S. (2011). Comparison of the Self-rated Health Status of Wage Workers in Korea according to Income Index by Gende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23*(4), 360-370.

Kim, H. S. (2013). The Exploratory Study on Working Experience of Poor Female-Headed Families in Social Enterprise - Focusing on Empowerment Proces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5*(1), 175-199.

Kim, H. Y. (2010). *The effect of married woman's job stress on the marriag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Kim, J., & Chang, S. J. (2012). The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health problem according to working condition. *Health and Social Science, 31*, 5-24.

Kim, K. R., Cho, G., Han, Y. Y., & Kim, J. (2014). A study on female employees' work-life balance and health status: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The Journal of Asian Women, 53*(1), 91-120.

Kim, S. S. (2012). Study of characteristics on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s. *Gender and Culture, 5*(1), 71-103.

Kim, Y. G., Yoon, D. Y., Kim, J. I., Chae, C. H., Hong, Y. S., Yang, C. G., et al. (2002). Effects of health on shift-work - general and psychological health, sleep, stress, quality of life -.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14*(3), 247-256.

Kim, Y. S., & Cho, H. H. (2014). First and second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A comparison between South Korea and EU countri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3*(4), 277-286. http://dx.doi.org/10.5807/kjohn.2014.23.4.277

Kwak, S. J., & Jung, H. S. (2014). Occupational stress of women workers in service industries depending on their working condition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3*(2),

89-95.

Lee, B. I. (2009). Korean gender differences in job stress and depression of service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8*(2), 232-241.

Lee, B. I. (2015). Gender differences in psychosocial working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Korean interactive service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2), 132-141. http://dx.doi.org/10.5807/kjohn.2015.24.2.132

Lee, S. Y., Choi, I. R., & Kim, E. Y. (2013).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women with pre-school children.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5*, 2069-2084.

Ok, S. H., Sung, M. A., & Huh, J. W. (2001). Family life issues of poor female earners after Korean economic crisi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156*(1), 1-13.

Rajaram, R. (2009). *Female-headed households and poverty: Evidence from the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University of Georgia, USA, 132-137.

Rimaz, S., Dastoorpoor, M., Vesali, S., Saiepour, N., Nedjat, S., Sadeghi, M., et al. (2015).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quality of life in female headed families. *Medical Journal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29*, 270.

Schütte, S., Chastang, J., Malard, L., Parent-Thrion, A., Vermeylen, G., & Niedhammer, I. (2014). Psychosocial working condi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employees in 34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Archive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87*, 897-907. http://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00420-014-0930-0

Shin, H. J. (2010). A study on social exclusion factors influencing on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6*(1), 315-342.

Statistics Korea. (2015). *Women's life in the statistics*. Sejong: Korea Development Institute.

Veisani, Y., & Delpisheh, A. (2015). Decomposing of socioeconomic inequality in mental health: A cross-sectional study into female-headed households. *Journal of Research in Health Sciences, 15*(4), 218-222.

WHO Collaborating Center for Mental Health. (1998). *WHO (Five) well-being index*. Geneva: WHO Press.

Yi, E. H., & Lee, S. E. (2009). A decomposition of gender differences on the poverty among the urban working household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1*(4), 333-354.

Yoon, J., Yi, K., Kim, S., Oh, J., & Lee, J.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tress and musculoskeletal symptoms in call center employe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19*(4), 293-303.